

남성용 네크웨어에 나타난 상징성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의류학과

황윤정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유태순

目 次

1. 서 론	4. 성격 요인
1. 연구의 목적	5. 신체적 요인
2. 연구범위 및 방법	6. 전통적 요인
II. 네크웨어의 역사	7. 이념적 요인
III. 네크웨어에 나타난 상징 요인	IV. 결 론
1. 사회적 요인	참고문헌
2. 심리적 요인	ABSTRACT
3. 정치적 요인	

I. 서 론

1. 연구의 목적

의복은 시각적 혹은 비언어적 상징으로서 의사 를 전달하는 ‘무언의 언어’¹⁾중의 하나로 자기를 표 현할 때 원하는 인상을 얻기 위해서는 의복 상징 이 나타내는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¹⁾ 의 복상징은 많은 다른 형태의 인간행위 보다 더 명 확하고 시각적이다. 즉 자기의 진실된 표현이며, 뚜렷하고 명백한 방식으로 제시되고, 매우 정확히 지각될 수 있는 다른 단서들과 부합된다.

인간에게 주어진 특권 중의 하나가 인간은 “의 복을 입는 동물”²⁾로 다른 동물과 달리 인체를 무 한히 창조적인 형태로 꾸밀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점이며, 의복 착용은 단순히 신체보호만 이 아닌 여러가지 욕구나 동기에서 비롯된다. 또

한 의복은 인체 위에 표현되는 예술로서 인간의 내면적 가치판단과 심리적인 미의식의 발로이며 생활양식의 직접적인 표현이기도 하고 실용성을 넘어선 장식적 표현성을 강조한 성격을 지닌다. 일반적으로 인간의 특성 중의 하나가 복식에 대한 미의 추구이며, 미적 표현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장식하려함은 인간의 본능이라 할 수 있고, 그것이 의복을 통해 표현되는 복식조형에 있어 중점을 두는 여러 장식 부분 중 ‘목’은 얼굴과 함께 인간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부분으로 옛부터 인체장식의 요점³⁾으로 되어 왔으며 그 변화의 다양성에 있어서도 그밖의 다른 부분을 능가한다.

아울러 복식의 미는 장식부분에 따라 효과적인 복식미를 형성할 수 있으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네크웨어(neckwear)는 복식의 하나이기는 하지만 실용적인 측면과 장식적인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인체의 장식부분 중 가장 시선을 집

* 본 연구는 효성가톨릭대학교의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중시키는 영역으로 의복과 착용자의 인상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

한편 인류는 물건에 초자연적인 힘이 불는다는 주물승배사상의 영향으로 인체의 중요부분인 목 부분에 나름대로 아름답고 가치있으며, 동시에 자기몸을 보호해주리라 여겨지는 물체를 걸어 장식⁴⁾했다. 처음에는 이렇게 부적과 같은 의미를 가졌던 목부분의 장식은 차츰 권력과 재력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였으며 그 재료는 자연조건이나 문화의 기준에 따라 다르다. 권력이나 부, 사회적 계급을 나타내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목부분을 강조하여 장식하기도 했다.

특히 목을 그대로 드러내 놓는 것은 허약의 상징이며 동정을 유발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였으며 남자의 경우는 허약함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목을 싸고 감추는 경향⁵⁾이 나타났고, 이것이 오늘날까지 여성에게서 보다 남성의 네크웨어가 다양하게 발달하게 된 동기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남성용 네크웨어의 역사에 나타난 상징적인 요인을 분석하여 단순히 장식을 목적으로 하는 것 외에 남성 고유의 의미로 부각됨과 동시에 지위, 개성, 정치성, 건강, 관습 등과 함께 여성 의상에 등장하는 네크웨어가 여성해방의 상징으로까지 표현됨을 고찰해 보고 의복의 한 부분으로서 역할의 중요성을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범위 및 방법

이 연구는 네크웨어의 역사를 바탕으로하여 연구범위를 네크웨어가 남성의상에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17C부터 남성복에 없어서는 안되는 독립된 의복의 한 부분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현대에 이르기까지 각종 문헌을 토대로 고찰하였다.

뿐만 아니라 네크웨어의 기본을 알아보기 위해 역사적 관점에서 B.C 221년부터 다루었으며 네크웨어에 사용된 상징요인을 밝히고자 시대적 측면

에서의 유형을 조사하고 그 의미와 상징성을 분석하였다.

II. 네크웨어의 역사

네크웨어는 목도리, 타이, 머플러, 스카프 등을 포함하여 목부분에 사용되는 악세사리로 실용적인 축면과 장식적인 축면을 모두 가지고 있으나 겨울철의 추위가 극심한 지역에서는 실용적인 축면⁵⁾이 강조되었을 것이다. 즉 추운 날씨에 의복을 다 갖추고 난 다음에도 인체의 예민한 부분인 목은 훤히 그대로 노출되기 쉬웠고, 따라서 이를 따뜻하게 보호하기 위해 목도리나 머플러 등의 네크웨어가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목도리는 기원전부터 매었다는 증거가 있다. 1971년에 B.C 3C경으로 추정되는 최초의 중국 황제인 진시황제와 함께 묻인 7,500개의 토병들이 발굴되었는데, 그들 모두가 목도리를 매고 있었고 B.C 3C경 로마 병사들은 겨울에 보온용을 제외한 몇 가지 의도로 포칼레(focale)라는 스카프를 매었다. 포칼레는 거칠은 천으로 만들었고, 목수건과 손수건으로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네크웨어가 오래전부터 나타났다고 볼 수 있으나, 오늘날과 같은 넥타이로 표현된 것은 17C 후반으로 추정하고 있다.

30년 전쟁 (1618~1648)에 참가한 프랑스 군인들이 크로아티아 출신 프랑스 동맹군의 목수건에 매혹되어 이것을 프랑스에 소개한 것이 현대 남성 네크웨어의 기원⁶⁾이 되었으며, 17C초 러프(ruff), 위스크(whisk)와 같이 넓은 칼라에 풀을 먹이고 다림질 하는 것이 군인들에게는 불편하였으나, 목수건은 목에 여러번 감고 술장식을 달고 레이스를 붙이면 보기에도 좋고 사용하기에 편리함으로 실용적이었다는 유래와 1660년대에 가발이 거대해지면서 러프와 칼라대신에 조끼와 코트의 목장식으로 대체되었다는 유래가 있다.

크라바트가 영국에 들어온 것은 Charles 2세 (1660~1685)에 의해서였는데, 그는 오랫동안 프

랑스 왕실에 퍼진해 있다가 1660년 영국으로 귀환하면서 당시 프랑스에서 유행되었던 크라바트를 도입한 것으로 영국에서는 프랑스식으로 리본장식을 하지 않고 매듭도 하나로 하였다.

17C 말엽에는 크라바트가 군인들의 영향으로 변화가 생겼는데 1692년 8월 프랑스와 홀랜드의 전쟁 중 프랑스군의 습격으로 인하여 크라바트를 정식으로 맬 시간적 여유가 없어 목에 두른 후 끝을 코우트의 단추 구멍에 끼워 넣었다. 이 싸움에서 프랑스가 크게 이겼으며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크라바트 매는 방법을 스타인커어크(steinkirk)식이라고 불렀으며 크게 유행하였다고 대부분 호 Votaire는 Louis 14세의 시대에서 기술하고 있었다.⁷⁾

영국과 미국에서는 스타인커어크를 18C 중엽까지 착용하였고 프랑스에서 스타인커어크는 1715~1723년 설정시기 때 와서 점차 유행에서 쇠퇴되는 대신 넓고 거치장스러운 '아라 샹제리에(a la chanceliere)'식 크라바트가 유행했다. 넓은 밴드로 된 목장식인 스톡(stock)이 등장하면서 크라바트 유행에 변화가 왔었다. 스톡은 리본이나 캠브릭(cambric)으로 주름을 잡던지 풀을 뺏듯이 먹여 만든 밴드로 목에 둘러 목뒤에서 고정시켰고, 1730년경에는 스톡 위에 넓고 검은 리본을 매는 솔리테르(solitaire)가 유행하였는데, 이것은 항상 큰 가발 혹은 돋지꼬리형과 같은 리본이 뒤에서부터 앞으로 돌아와 턱 밑에서 나비 모양으로 매는 것이 보통이었다. 1770년경에 마카로니들에게서 크라바트가 다시 유행을 하는데, 이때 크라바트는 끝을 레이스로 장식한 머슬린으로 만들었고 턱 밑에서 나비 모양으로 묶었다.

1795~1799년 어두운 공포정치시대 후에 파리의 젊은이들은 보다 더 사치스럽고 화려한 삶의 즐거움을 느끼도록 한 광적인 의상의 전조로 묘사했다. 이런 기괴한 남성의 모습을 그들의 거대한 웃깃, 과장된 윤곽(가는 허리와 넓은 어깨), 머리 양쪽을 개의 귀같이 벗질한 긴 머리와 무엇보다도 그들의 특길이 전체를 둘러싸는 거대한 크라바트

의 강렬한 색상과 때때로 줄부늬로도 만들어진 솔 같은 악세사리 등과 같이 눈에 띄게 과장한 복장 형태 때문에 잉크루아야블(incroable)⁸⁾이라 이름 붙였다.

1815~1830년까지 런던 및 전유럽의 패션은 'Brummell'이라 불리웠으며 예술로까지 인정 받았다. 이것은 복수건에 뿐을 먹여 세우거나 수직으로 뻗치도록하여 멋지게 매듭으로 묶는 기술로 런던의 모든 멋장이들의 경탄의 대상이었고, 1830년경부터 크라바트는 넥타이로 누를 수 있을 만큼 남성 복장의 조그마한 악세서리로서 변화⁹⁾를 했으며, 이때부터 넥타이는 흰색, 검은색 이외에도 색채가 다양한 기성품이 나왔다. 1837년경에는 넥타이라기 보다는 스카프라고 불렸던 목장식이 등장했는데, 이 스카프는 셔츠 전면을 뒤덮었고 타이 편으로 장식하였다. 1840년경에는 긴 타이를 매기 시작하였는데 복을 두번 감은 후에 셔츠 전면에 넓게 내려뜨린 것이 스카프와 같았으며, 1860년도 후반에 와서 높은 넥타이는 찾아 볼 수 없게 되고 좁고 납작한 나비 모양의 타이가 등장했다.

1870~1914년경 남성의 경우 패션은 네크웨어로 상징되기 시작했다.

남성 양복의 장신구로서 300년 이상의 역사속에서 여러가지 모양으로 변천해 온 넥타이는 20세기에 들어오면서 현대의 일반적 매듭형태인 포-인-핸드(four-in-hand)¹⁰⁾로 변화 되었으며, 1940년에는 영국군 비행사들이 넥타이 대신 두른 물방울 무늬의 실크 목도리와 스카프가 전쟁 중에 나타나기도 했다.

1980년대에는 넥타이의 사용자가 연간 약 10억에 달했고, 현재의 주요 타이 생산국은 이태리와 프랑스, 중국, 영국으로 다양한 색과 패턴이 증가된 올드 패션(old fashion)인 영국식 타이가 리바이벌 되었다.

요즘에는 넥타이가 그 형태와 매는 방법에 있어서도 아주 다양하여 용도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복식이 되고 있다.

III. 네크웨어에 나타난 상징 요인의 고찰

1. 사회적 요인

1) 지 위

시황제는 중국통일에 성공하여 B.C 221년에 진 왕조를 설립한 전제 군주였다. 그는 왕국 주위에 도로망과 만리장성 축조에 수백만의 백성을 강제로 징집하는 것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대단한 야심가였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처럼 자신도 어쩔수 없이 죽는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수도근처에 거대한 무덤을 짓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자신과 함께 동반할 전 병사들을 학살하여 동반 매장할 의도였지만, 결국에는 테라코타로 복제된 그들의 실물크기의 모형들을 만들도록 했다. 각 형상은 모두 독특했고 모든 세밀한 갑옷과 투구, 머리카락 그리고 복장은 지나칠 정도로 세심하게 모방되었다. 이처럼 무덤에서 발견된 7,500 여개의 군인 조각상은 목도리를 감고 있었는데(그림 1), 그 목도리는 중국군에게 주어진 개인의 명



(그림 1) Terracotta soldier
WWD, 1994, 10, p.42.

예를 표시¹¹⁾하였으며, 지위의 표시로 네크웨어를 사용할 때 중국인과 로마인은 역사 만큼이나 오래된 전통을 따르고 있었으며, 그들이 착용한 목도리는 ‘나는 특별하다’는 것을 말해 주었다. 또한 로마군에게 목도리는 군인의 표시이며 성공의 표

시를 나타내기도 했다.

남미 정글이나 아프리카 평원, 태평양군도 등의 뜨거운 기후에는 의복이 항상 허리에 두르는 간단한 옷이나 앞치마에 국한 되었으나, 그들은 반면에 깃털, 돌, 구슬, 조개 등을 실에 꿰어 그 사람의 부와 중요도를 표시하기 위해 목에 둘렀으며(그림 2) 또한 크기와 종류가 다른 조개를 사용한 네크



(그림 2) Neckwear of Beads, Shells & Bone
The Tie Trends & Traditions, p.11.

레이스(necklace)는 그의 가문과, 결혼 여부, 신분을 나타냈다. 즉 자주 혹은 무인임을 나타낼뿐 아니라 상속자가 있는지 여부 등을 가리켜 주는 표시이다. 따라서 네크웨어는 지위, 직업, 부 외에 종족과 사회의 우두머리를 알리는데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상징적 기능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영국은 Charles 2세가 1660년 왕정복고한 시기에 다시 한번 호화스런 레이스로 목을 장식하면서 그의 부와 스타일을 과시하는 것이 유행되었고, 17C의 넥타이는 엘리트들을 위한 목도리로 세탁하고 다리며 정돈하는데 엄청난 양의 시간을 요하는 섬세하고 흰 레이스, 린넨이나 모슬린으로 만든 값비싼 제품으로 부와 한가한 생활 스타일을 나타내는 수단¹²⁾이 되었으며 이 스타일은 18C 초까지 계속되었다. 그후 18C 말경에 Belcher가 착용한 목도리는 남성 패션에 일대 전환점이었다. 본래 그 기원은 노동계층에서 나온 것으로 실용적이고 단체로 우며 착용하기 쉬웠다. 또한 노동계층

과 미국 개척주의와 중상류계층의 계식간에 하나의 다리 역할을 하기도 했다.

따라서 넥타이는 착용자의 신분이 즉시 구별되는 기준이며, 그 자체가 신분을 나타내는 문자이기도 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계층적이며 옷을 선택할 때 조차도 계식에 맞게 제한 받았고, 항상 자기 신분과 개성을 나타내는 방법을 알게 되었으며, Brummell이후로 넥타이나 타이가 자신을 나타내는 최고의 기회로 제공되었다.

1837년 빅토리아 여왕 통치하에 대부분의 종류 층 군주인 상인들의 사업이 장려되지는 않았지만 번창하였다. 이것은 대학교육을 받은 변호사, 의사, 전문직 종사원으로 구성된 상위종류층 준귀족 군과 소규모 상인, 농부, 뛰어난 기술자로 구성된 하위 종류층군, 개인 소유의 번창하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능력있는 화이트 칼라층 등으로 나뉘어져 생활의 큰 차이를 나타내는 등 계층 속에 계층이 존재하였다. 이에 따라 각 계층마다의 네크웨어는 지위변화가 가능한 사회내에서 그의 위치를 나타내었으며, 사회적 계급이 점점 아래로 내려갈 수록 네크웨어는 더 밝고 다양해졌다.

특히 클럽이나 학교, 연대에서 착용한 넥타이는 계층을 나타내는 하나의 명백한 단서가 되었다. 예를 들어 소총부대의 타이보다 보초병의 타이가 사회적인 위치가 더 높았으며, 육스포드와 캠브리지 요트클럽의 타이가 템즈강 사공의 타이보다 더 상류층을 나타내는 수단이었고, 이튼의 타이가 웨링턴과 같은 신설학교의 타이보다 더 광범위하게 선호¹³⁾되는 등 모든 유형의 공립학교 넥타이는 그 착용자의 가족이 얼마만큼의 돈과 명예를 지니는지를 암시하는등 착용자의 가문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넥타이는 의복의 계층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네크웨어를 계급 구분의 상징, 직업의 직위와 야망의 표시로 착용했다. 몇 가지 전쟁으로 인해 고유의 보수주의 경향이 증시되었고, 영국에서는 줄무늬 타이 중 하나를 맬 수 있는 것은 자존심의 문제였으며, 지금까지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 특권을 얻었고, 미국인들은 프

랑스와 벨기에의 전쟁에서 그들이 보았던 것에 영향을 받아 줄무늬 타이를 장교와 신사의 상징이었던 관습을 그들 나라에서도 적용하였다.

또한 비스듬하게 줄진 넥타이는 전문 직업인의 고결한 인격 상징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모든 클럽과 사회단체는 그들만의 디자인을 가지기를 원하였다. 이것은 남성의 경우 급격히 변화하는 불확실한 시대에 이 줄무늬 타이 중 하나를 착용함으로써, 그 착용자가 어디에 소속해 있다는 의미를 부여했고, 특히 줄무늬 타이는 대중들에게 단절된 것처럼 보이는 매력과 특권세계와의 친밀성을 나타내기도 했으며, 클럽타이와 군복의 줄무늬는 사실 훌륭한 사회 집단과 공동체 의식을 전달하였다(그림 3).



(그림 3) Four in Hand
The Book of Ties, p.97.

1975년 Molloy는 ‘성공을 위한 의복’이란 저서에서 타이를 착용한 남자가 착용하지 않은 남자보다 더욱 신뢰감을 주는 것처럼 보이고, 사무 근로자들에게 있어서 넥타이는 가장 중요한 지위상징의 수단이며 더 나아가 넥타이의 색상은 셔츠의 색상보다 더 어두운 색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Bassett는 남성들이 넥타이, 구두와 더불어 드레스 셔츠, 슈트와 같은 높은 지위직의 복장을 차렸을 때 매우 능력¹⁴⁾ 있어 보인다고 하였다.

또한 타이는 존경과 책임의 상징이다. 그것은 당신이 누구인가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의미

인 것으로 사회에서 존경과 칭찬받는 집단의 상징으로 되어왔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모방했는데, 2차 세계대전동안 비행기 조종사들이 맨 실크 코라바트는 그들이 존경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방한 것이었다. 또한 타이는 당신이 육체노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며, 원래 서구에서 시작하여 세계의 모든 곳으로 전파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부자인 서구와 같다’라는 메세지의 하나인 지위상징으로 착용¹⁵⁾ 되어지고 있다.

2) 사회적 상호작용

1950년대 후반부터 타이의 착용은 의무화되었는데 이러한 구속이 사무실이나 밤에 외출할 때, 특정한 가족 모임에서도 강요되어졌다. 많은 남성들은 타이를 순응과 사회적 통제의 표식으로 생각하여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넥타이를 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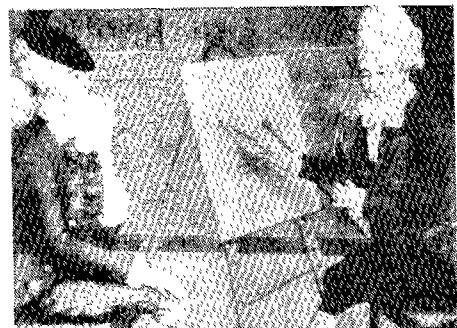
반면에 넥타이의 여러 문양들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해서 고안되었는데, 스포츠와 사냥문양은 남성의 특수그룹에게 인기를 모으기 위해 고안된 것이고, 작은 동물문양은 원래 여성들의 마음에 들도록 고안한 것이다. 또한 유머러스한 문양은 풍자적인 고전적 문양으로 웃음을 주기 위해 고안되었다. 미국에서는 그러한 타이를 종종 ‘대화 출발 신호(conversation starters)’라고 하였다. 왜냐하면 이 문양의 이색적인 디자인이 대화를 촉진 시켜주며 따라서 사회적 상호작용¹⁶⁾을 용이하게 하였다.

2. 심리적 요인

1) 개 성

18C 목도리는 착용자가 그의 개인적 취향을 나타내고자 목 앞부분에 긴 천으로 둑어 장식하거나 정교한 나비리본을 하기도 했으며(그림 4) 또 다른 변형으로 이전의 늘어뜨린 스타일을 흉내내었다. 또한 단순한 모슬린 띠는 스톡과 함께 전통적인 영국 남성복장에 나타난 절제의 상징¹⁷⁾이었다.

반면 18C 말경에는 이제까지의 사상들이 기초



(그림 4) Lace Bow

The Book of Ties, p.228.

부터 흔들렸다. 즉 미국혁명과 프랑스혁명 이후 상류층은 이제 더이상 그들의 부와 명예에 의존할 수 없었다. 여기에는 광범위한 육체노동계층에 대한 두려움과 혐오가 있었고, 또한 부상하는 강력한 종류계층에 대한 두려움과 혐오도 존재하였다. 이러한 두 강력한 계층에 대한 혐오 이상으로 구귀족들의 부와 스타일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등장한 Brummell풍은 남성복을 변화시켰고, 이에 따라 의상으로 자신을 과시하기를 바라는 누구나 Brummell이 제시한 스타일에 따라 가장 신플하고 섬세하게 재단된 의복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멋쟁이는 넥타이를 매는 방법에 따라 모든 개성을 보여주거나, 그의 개인적 번역과 취미를 암시하게 되었으며, 이처럼 Brummell에 의해서 아주 훌륭히 갖춰진 넥타이가 실로 멋쟁이의 표시¹⁸⁾가 되기도 했었다(그림 5). 1865년경 대다수의 사람들은 폭넓은 범위의 스타일에 익숙했다. 복장이 단조로운 시대에서 다른 넥타이는 개인에게 분위기 및 태도의 변화를 나타내주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모든 중류층 사람들이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값이 쌌다.

시대의 변화에 따른 포-인-핸드는 넥타이가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애용된 이후로 넥타이의 무늬와 모양이 착용자의 감정과 심리를 표현하는데 가장 잘 적용되었다. 특히 1930년대의 기록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넥타이는 개인의 스타일을 보여주는 주된 기회였으며, 그 스타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메세지를 분명히 보여주었고 네크웨어는



(그림 5) Neckcloths
Costume in Australia, p.67.

모든 다른 장식을 조화시켜 전체 외형을 부각시키는 효과를 주었다.

따라서 타이의 선택은 그의 개성을 표현하는 남자의 가장 확실한 수단이다. 특히 관습이나 고용에 있어 종종 그 조화를 나타낼 때 그러하다. 또한 타이는 남성복의 중심점이지만 만일 타이가 너무 두드러지고 눈에 거슬린다면 오히려 역효과를 볼 수 있고 넥타이를 순응의 상징으로 보는 대신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넥타이의 작용을 완전한 선택적 자유로 나타나는 독자적인 패션 성명서의 증명으로 보기도 한다.

Dores Institute의 Feldag은 현대복식에서 타이의 중요성을 연구했고, 이것은 종류계층의 남성들은 킥법이나 군대의 줄무늬를 맨 모습일 때 더욱 자기자신을 과시하였고, 상류층의 남성들은 사무실에서의 작용이 더욱 패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네크웨어의 폭넓은 다양함에 대해 “타이는 일치와 개성간의 경쟁에서 완벽한 무기이다”라고 했으며,¹⁹⁾ 그는 각 계층마다의 타이의 중요성을 주장하였다.

오늘날 넥타이의 수없이 많은 무늬 양식은 남성 슈트의 지루한 획일성과는 달리 대조를 이루고 다양한 개인적 표현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것은 자기 표현의 가능성을 제시하였으며, 타인에게 보이 고자하는 만족감은 넥타이를 예술적으로 표현했

고, 현대 패션에서의 주요한 역할을 제공하며 특히 감각적 만족감의 원인이 되었다.

그러므로 타이는 남성외상에서 허용되는 디자이너의 아이디어에 의한 독특한 작품이며, 모든 연령층과 다양한 착용자들을 위한 진실된 표현으로 구성되었다. 이제 타이는 의복을 착용하는 사람의 개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특히 넥타이의 색상과 부리는 그 사람의 기분과 내면의 세계를 가장 잘 반영하고, 현대 남성들은 한가지의 악세사리만으로 자신의 세계상을 드러내고 그들의 존재를 부각시켰다.

2) 모 육

Brummell은 오늘날까지 지속되는 고정되고 간결한 브리티쉬 스타일(그림6)의 창시자²⁰⁾이고, 맨



(그림 6) British Style
The Tie Trends & Traditions, p.39.

디들의 우상으로 그는 독특하고 높은 크라바트를 착용하였다.

그는 모슬린과 캠브릭으로 된 새 하얀 크라바트만을 착용했고, 풀을 사용하여 원하는 모양을 유지하였다. 그것은 그가 고안해 낸 방법으로 그의 좋지 않은 쟁탈을 대변하듯이 결국에는 최고의 모욕으로 겸은 크라바트를 착용하도록 강요받았다.

3. 정치적 요인

유럽에서의 30년 전쟁과 1660년 Charles 2세의 왕정복고시대를 거치면서 넥타이 출현의 이유들은 더 복잡하고 혼란스러웠다. 영국 남서부의巴斯(Bath) 의복박물관의 Byrdre와 같은 몇몇 권위자들은 넥타이가 원래 띠를 늘어뜨린데서 발전²¹⁾했다고 믿었다. Byrdre가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1630년대에 넥타이가 형태적 특징으로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긴 머리를 부여하였고 정치적 종교적 충성을 표시하기 위해 귀족들에게 유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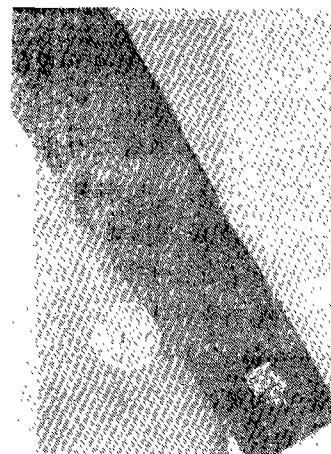
넥타이는 17C 중엽에 만들어졌으며 프랑스 궁정에서 넥타이는 그 자체에 종교의식을 추가했다. 특히 앵크루아야블은 극단적인 경우 하나는 검은색, 또 하나는 흰색의 두장의 모슬린을 사용하여 공화당에 찬성함을 선전하였으며, 동시에 동맹을 과시하기를 원했던 프랑스 왕당원은 녹색 목도리를 착용²²⁾했다. 이러한 적당한 목도리의 착용은 도덕적 정치적 중요성을 지녔다.

한편 1840년 Brummell이 죽자 전통주의를 받아들이는 하얀 크라바트의 당원이 자유 정치와 관계된 검정 크라바트를 받아들이는 당원에 반대하는 싸움이 한층 더 격심해졌으며, 군인들이나 장례기간 동안에 착용했던 검은 넥타이의 부활은 정치적, 사회적 메세지를 전달하기 위하여 자신을 표현하는 새로운 기법을 추가시키는 기회를 주었다. 이러한 스타일의 착용은 사람들이 자유로운 사상을 받아들이는 것을 나타내었다(그림 7).

반면에 정치적인 요인으로 기호의 사용이 빈번하였다. 이처럼 타이를 매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반복적인 패턴의 성공은 분명히 역사적으로 그러한 디자인과 관련된 명성에서 나타났을 것이다. 중세때부터 작고 동일한 형태의 사용이 기호화 되었으며, 이러한 기호는 엄숙하고 위엄 있는 심지어 두렵기까지 한 것이었다. 따라서 기호의 사용은 왕실표시(그림 8), 대관식 예복, 신의 이미지 묘사에서 나타내고 있는데, 이러한 역사상 가장 유명한 문양은 봇꽃 문양으로 이것은 오늘날에도 넥타이에서 여전히 발견되는 프랑스 군주 정치의 상징이 되었고, 넥타이를 착용하는 것은 그 착용자의 우



(그림 7) Black Cravate
Costume in Australia, p.129.



(그림 8) Four in Hand
Anziehungskrafte, p.316.

아함과 매혹적인 매력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결정적일뿐 아니라 역사적 중요성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4. 성적 요인

스톡을 착용한 사람은 훌륭한 남성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즉 머리와 턱을 앞으로 똑바로 유지하도록 하였고, 김정 스톡은 군인적 매력 때문에 결국 유럽의 군대 유니폼의 표준형태가 되었다. “스타일이 남성을 만드는 것이라면 바꾸어서 크라바트가 남성 자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Balzac이 크라바트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넥타이에 관한 논문 보고서에서는 15가지의 다양한 장식 매듭법을 열거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과학자들의 객관성은 수학적 넥타이의 근엄하게 십자로 교차시킨 매듭에서 가장 잘 나타나고, 시인의 낭만은 바이런식 넥타이의 부푼 서정미에서 잘 묘사되는 반면에, 사랑하는 이들의 수줍음은 감상적인 넥타이에서 우아하고 남성다움이 나타난다²³⁾고 하였다.

또 다른 형태인 노동자 계층이 쓰던 스카프는 19C 말 난폭했던 남작들과 야심찬 투기꾼들의 정장으로 시작되어 한때 가장 낭만적인 유니폼의 한 장식으로 착용되었으며, 미국에서는 이것을 반전시켜 헐리우드가 서부영화에서 유명하게 만들었고(그림 9), 세계각국의 젊은이들이 건강하고 독



(그림 9) Cowboy Neckerchief
The Book of Ties, p.57.

립적인 남성의 상징으로 다시금 사용하게 되었다. Laver에 따르면 좁게 직조된 끈이나 가죽띠 모양의 넥타이는 나이 많은 미국 남성들에게 선호되었는데, 그 이유는 넥타이들이 정력의 감퇴 또는 정력의 고갈을 상징²⁴⁾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심리학자들은 넥타이가 남근을 상징한다고 하였으며, 기하학적 무늬는 질서에 대한 갈망이고 반복되는 조그마한 무늬는 불안감 등을 전달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Freud는 페이즐리 패턴의 타이는 정액과 닮았기 때문에 남자다움을 나타낸다²⁵⁾고 하였다. 포-인-핸드의 도입은 대략 1870년대부터

이며 오늘날 가장 많이 이용되는 포-인-핸드는 남성미, 스피드 등 활동성과 연관되어 있다.

5. 신체적 요인

1) 신체보호

초기 네크웨어의 기능은 혹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었다. 중국의 네크웨어는 군인들의 후골을 보호하려는 의도로 착용되어졌으며, 중국 문화권에서는 후골을 신체의 힘과 생명력의 중심으로 여겨 왔다.

2) 건강

Blanc이 말하기를 로마역사의 여러 단계에서 손을 제외하고, 목을 덮거나 때때로 토가(toga)로 목주위를 감싸는 것 같은 남자와 시민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간주되었다고 주장하였고, 반면에 로마 작가 Horace, Seneca와 Quintilian은 목도리가 아프거나 나약한 사람의 표시²⁶⁾였음을 주장하였다.

18C 초에는 강한 군사력을 과시하기 위해 장교들은 군인들에게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이고 친절하게 대하는 대신에 목도리를 단단히 매도록 강요하여 거의 질식을 유발시켰다. 즉 군인들에게 건강을 획득할 기회를 주는 대신 목도리를 단단히 매어 혈색을 붉게 하여 건강해 보이도록 강요²⁷⁾했고(그림 10), 1780년과 1790년대에는 앵크루아야블로 알려진 다소 특이한 모양의 넥타이가 인기 있었는데, 비영국 국교도들이 선호한 이 앵크루아야블 목도리는 몇 야드되는 흰색 린넨이나 모슬린을 턱, 목, 심지어 얼굴까지 감싸서 그 착용자가 마치 심한 치통이나 유행성 이하선염을 앓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했고(그림 11), 넓고 펴려는 나비형 타이가 어깨위로 늘어뜨려졌다. Blanc은 ‘넥타이는 단지 장식의 일부분이 아닌 건강을 보존하는 것 중 하나’라고 주장했으며, 19C 초의 넥타이 모드는 완전히 목 보호용으로 소개되었다.



(그림 10) Black Lacy Cravate
The Tie Trends & Traditions, p.25.



(그림 11) Incroyable
The Tie Trends & Traditions, p.48.

6. 전통적 요인

1) 전 통

페이즐리는 대추야자 열매의 새싹형태의 양식화된 변형으로 고대 바빌로니아시대에는 음식과 음료수, 유용한 물건을 만들기 위한 원료와 생존에 필수적인 모든것을 제공하는 강력한 풍요의 상징이었다. 오늘날에는 페이즐리 문양으로 장식된 넥타이를 매는 사람은 과거 수천년의 전통을 따르는 사람으로 패션의 변화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페이즐리는 최신의 모양으로 되어졌고, 수백의 새로운 페이즐리 문양이 매년 타이에 모습을 드러내었다.

2) 문 화

넥타이에 의해 제공되는 표현의 자유를 Dior의 남성복 디자이너 Lavoix가 'Jet Society'란 그의 저서에서 '넥타이란 깃발과 같다. 단순히 한벌의 옷의 차원이 아니라 문화 혁신운동이다'라고 제시²⁸⁾하였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타이가 남자들의 부를 나타내려고 디자인된 레이스 크라바트로 시도된 후, 수세기 동안 습득된 교양과 예절을 상징하는 것이며, 타이는 서구의 상징이 되어지고 있고 세상에서 서구문명의 가장 널리 퍼져 있는 상징이다.

7. 이념적 요인

오랫동안 여성들은 타인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크라바트를 착용하였다. 그러나 19C 여성해방 사상이 주장되기 시작하면서, 여성들은 남녀평등을 위해 남성들의 넥타이를 여성해방의 상징²⁹⁾으로 착용하기 시작하였다(그림 12).



(그림 12) Wearing a Men's Tie
The Book of Ties, p.36.

초기의 여성해방 운동은 보다 더 활동적이고, 자유롭고 원기 왕성한 삶의 스타일을 제시하면서, 특히, 코르셋과 크리눌린 등으로 신체적 압박을 주는 정교한 드레스로부터 여성들을 해방시켜야 할 필연성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계기로써 제1차 세계대전은 여성들에게 모든 경제 분야와 사회계

총에서 남성들을 대신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이러한 여성 위상의 변화는 20C 전쟁과 격동의 시기를 거치면서 여성 의상이 남성화되는데에 직접적인 기원이 되었고, 세월이 지나면서 여성들이 남성의 네크웨어를 착용하는 의미가 과격하게 변해갔다. 즉 초기의 헤이스 크라바트와 색상이 화려한 타이의 착용이 여성에게서 감소되어지고, 점차적으로 남성 모방에 의해 동등한 권리로 부여받으려는 의지를 확고히 하는 수단으로 발전되었으며, 마침내는 그들이 남성과 다르지 않는 것을 알리는 방법이 되었다.

그러므로 넥타이는 최초의 여권주외자들에게 자유의 상징이 되었다. 예를 들어 Sand여사와 Tristan은 넥타이를 해방의 상징으로 매었으며, 여성은 사회의 관습적인 규칙으로부터 자유를 갈망하는 의미에서 남성의 타이를 착용했다.

따라서 19C는 불론이고 전통적 성 구별이 흐려진 1960년대에도 여성들은 크라바트나 넥타이를 자신의 독립성과 여성해방의 신념을 나타내기 위해 착용하였다.

IV. 결 론

인간의 장식에 대한 본능적인 욕구로부터 시작된 네크웨어의 발생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특히 목부분의 보호로부터 장식적인 측면까지 다양한 표현 방법으로 나타났다. 복식이 여러 가지 형태로 발달함에 따라 의복에 있어 목부분의 장식도 많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여 왔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네크웨어의 역사 속에 나타난 상징요인을 분석 고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사회적 요인으로 지위, 계층, 신분을 나타내었으며, '대화 출발 신호(conversation starters)'로서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나타냈다.

둘째, 심리적 요인으로는 착용자의 개성, 취향, 태도를 나타내거나, 강요에 의한 착장으로 보육을 주기도 하였다.

세째, 정치적 요인으로 프랑스 왕당원의 녹색

목도리 착용과 같이 소속당이나, 왕실의 문장 등을 넥타이의 문양으로 나타냈다.

네째, 성적 요인으로는 사내다움이나, 남근, 독립성 등을 상징하였다.

다섯째, 신체적 요인으로 혹한 환경으로부터 신체보호를 할 뿐만 아니라, 보여지도록 강요했다.

여섯째, 전통적 요인으로는 관습과 전통을 나타내는 문양을 사용했고, 문화운동의 하나로도 착용했다.

일곱째, 이념적 요인으로 여성해방과 여권주의 자들의 자유를 상징하였다. 그 중 사회적 요인이 가장 광범위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고, 네크웨어는 그 종류만큼이나 표현방법이 다양해졌고, 보변화되었으며 의복의 독립된 한 부분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참고문헌

- 1) Horn M.J. & Gurel L. M., (이화연 외 역), 의복 제2의 피부, 까치, 1988, p.179.
- 2) 장문호, 복식미학, 장학사, 1982, p.73.
- 3) 김영수, 목부분 장식의 유형과 변천사적 고찰 -서양복식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4, p.1.
- 4) Ibid. , p.104.
- 5) 박옥련, 복식과 인간, 부산 : 경성대출판부, 1994, p.88.
- 6) 정은선, 넥타이 디자인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p.3.
- 7) Wilcox R. T., The Mode in Costume, New York : Charles Scribner's Sons, 1958, p.183.
- 8) F. Chaille, The book of ties, Flannarion, 1994, p.30.
- 9) 박민자, 남성 넥타이 발전에 대한 역사적 고찰, 대한가정학회지, 24(2), 1986, p.2.
- 10) 이남순, 남성용 넥타이의 변천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p.10.

- 11) S. Gibbings, *The tie Trends and Traditions*, Studio Editions London, 1990, p.10.
- 12) Ibid., p.24.
- 13) Ibid., p.81.
- 14) 김진구, *복식사회심리학*, 서울 : 경춘사, 1991, p.373.
- 15) S. Gibbings, op. cit., p.149.
- 16) F. Chaille, op. cit., p.86.
- 17) S. Gibbings, op. cit., p.26.
- 18) Ibid., p.41.
- 19) Ibid., p.147.
- 20) Ibid., p.39.
- 21) P. Byrde, *The Male Image : Men's fashion in Britain 1300~1970*, London, p.179.
- 22) A. Varron, *Ciba Review 38 Neckties Basel*, Switzerland, 1941, p.1293.
- 23) F. Ghaille, op. cit., p.12.
- 24) 유태준 역, *외복의 언어*, 서울 : 경춘사, 1986, p.229.
- 25) S. Gibbings, op. cit., p.148.
- 26) Ibid, p.11.
- 27) Ibid, p.25.
- 28) Ibid, p.149.
- 29) F. Ghaille, op. cit., p.37.

ABSTRACT

A Study on Symbolism of Man's Neckwear

The neck in the human body is closely connected with the life and properties of keeping warm as one of the opening part in clothes.

In ancient times, it was put on necklace for the protection of neck, and in Rome, it was worn muffler called focale for the protection of neck or throat. In addition, cravat directly

originated in necktie today was primarily worn for the protection of soldier's neck and has been turned into decorative purpose until today. As the ornament is developed to various kinds of form, the neck decoration is changed and grown again and again.

Therefore, this thesis studies history of the neckwear and various the symbolic factor.

The first factor is the social. The neckwear shows the social position, class and status and does social mutual interaction as conversation starters.

The second factor is the mental. It express individuality, fondness, attitude and is felt to be indignity by being forced to be worn.

The third factor is the political. It shows political tendency by indicating the royal sign or part's sign in necktie like the French royalist's green muffler

The forth factor is the man's sexual. It expresses wearing stock, being brave, symbolizing independence.

The fifth factor is the physical. It functions as being forced to be seen healthily and protected from severe cold.

The sixth factor is the traditional. It is worn with appearing tradition and custom and one of cultural movements.

The seventh factor is the ideological. It symbolizes the freedom of suffragettes and emancipation of woman.

The social factor is the most extensive among them. The neckwear is various in the way of expression like its kinds and is generalized. It functions as a independent part of clothes.